

“북미회담 성공·한반도 평화 정착 협력”

문 대통령, 아베 日 총리·리커창 중 총리 잇단 단독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달아 단독 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 및 오전 회담을 잇달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쥐서는 안 되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병충해·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을 거론한 뒤 “평화체제가 구축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동북아 안전 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 거리를 둔 뒤,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두 정상은 오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으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일본인 억류 피해자를 거론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를 살려가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북한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중 간의 조사업무가 진행할 수 있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중대 사안
3국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 성명 채택 환영
3국의 실질협력 확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위한 공조 강화
체육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 확인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의지 재확인




김정은-시진핑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라오닝성 다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7, 8일 이틀 동안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이 8일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북, 영구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中 역할론 강조…트럼프 “中과 소통·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국시간으로 7~8일 진행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시 주석은 7~8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북미 정상회담 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미 양국이 서로 마주 보고 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를 원한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북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이나 패시온’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고 CCTV는 전했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편집 손 떼다

3분기 부터 모바일 첫 화면 검색 위주 전환

뉴스 클릭식 언론사 사이트 연결 ‘아웃링크’ 추진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가 하반기부터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는 등 검색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연 뉴스 및 뉴스 댓글 서비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네이버는 더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먼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제외하고, 검색 중심의 첫 화면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모바일 첫 화면에서 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첫 화면을 가칭 ‘홈판’, ‘검색판’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 대표는 “첫 화면에 뉴스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 없이 기술적 개선 방안만으로 댓글을 개선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또 올해 3분기에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하기로 했다. 뉴스판은 첫 화면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두 번째 화면에 위치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 이익은 수수료를 제외

하고 언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독자 관련 데이터도 제공한다. 또 개인 관심사에 기반한 뉴스 추천 서비스인 ‘뉴스 피드판’도 만든다. 이 공간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추천 기술인 에어스(AiRS)로 운영된다. 이 두 공간의 댓글 허용 여부·정렬 기준 등 정책은 언론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사람에 의한 뉴스 편집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면 사용자마다 뉴스 소비 동선이 달라져 뉴스 댓글에 쏠린 관심도 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들이 요구해 온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일괄적인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지만, 언론사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대표는 말했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댓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패턴을 더 면밀하게 감지하고, 매크로(자동 프로그램) 공격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셜 계정의 댓글 작성 제한 ▲동일 전화번호로 가입한 계정들을 통합한 댓글 제한 ▲반복성 댓글 제한 ▲비행기 모드를 통한 인터넷주소(IP) 변경 방식 대응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 개정안 발의

유성엽 평화당 의원

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9일 거대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 기사 배열과 댓글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즉, 포털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하도록 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이다. 개정안은 또 포털사이트가 부정한 평가를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커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왔다”며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식행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30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인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인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